




 thebridgekorea

 thebridge_classics

 thebridge_intl

 더브릿지컴퍼니 The Bridge company

 <https://www.thebridgekr.com/>



선율 피아노 리사이틀
Youl Sun Piano Recital

2022. 2. 5. SAT 2PM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THE BRIDGE COMPANY



선 울 피 아 노 리 사 이 틀

YOUL SUN

Piano Recital



Pianist

YOUL SUN

국내 신인 연주자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음악상-피아노부문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교와 음악성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율은 난파음악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수리콩쿠르, 성정음악 콩쿠르, 이화경향콩쿠르, 국민일보-한세대 콩쿠르, 한국소팽콩쿠르, 영창콩쿠르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1위 및 폴로네이즈 상, 미국 E-Piano Junior Competition에서 2위와 슈베르트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선율은 지휘자 안토니 비트, 마시모 자네티, 마크 리셀 스미스, 이종기, 정주영, 홍석원 등과 호흡을 맞추었으며, KNIGA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북도립교향악단,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 예원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또한 일본 긴자 야마하홀,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IBK챔버홀, 영산아트홀, 계명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서울 야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 금호아트홀, 국제아트홀, 신한아트홀 등에서 무대를 가졌으며, 2021 경기피아노페스티벌, Yamaha Rising Pianist Concert, 최인아 책방콘서트, 아트엠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재콘서트, 더하우스콘서트 클로즈업시리즈와 줄라이페스티벌,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 디스커버리 콘서트, NWA Young Pianist Concert Series 2019, KNUA 베토벤 250th 'Strum und Drang', 2019-2020 국제아트홀시리즈 등 독주회를 비롯한 연주를 진행하였다.

선율은 다채로운 레퍼토리 연구와 연주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섬세한 터치와 고도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연주력과 개성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2022년 서울 예술의전당 단독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J. P. Rameau
장필립 라모

Suite in D major from Pièces de clavecin avec une méthode pour la mécanique des doigts

기술적 손가락 훈련을 위한 클라브생 작품집 중 모음곡 D장조

- I. Les Tendres Plaintes 상냥한 호소
- II. Les Niais de Sologne 솔로뉴의 얼간이 - 2개의 변주곡
 - Premier Double des Niais
 - Deuxième Double des Niais

C. V. Alkan
샤를 발랑탱 알칸

"Le Festin d'Ésope", Op.39 No.12

"이솝의 향연", Op.39 No.12

F. Schubert
프란츠 슈베르트

Fantasia in C major 'Wanderer', D.760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760

- I. Allegro con fuoco ma non troppo
- II. Adagio
- III. Presto
- IV. Allegro

INTERMISSION

A. Scriabin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Piano Sonata No.4 in F-Sharp major, Op.30

피아노 소나타 제4번 F#장조, Op.30

- I. Andante
- II. Prestissimo volando

S. Rachmaninoff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3 Preludes, Op.32

13개의 프렐류드, Op.32

- I. Allegro vivace in C major
- II. Allegretto in B-flat major
- III. Allegro vivace in E major
- IV. Allegro con brio in E minor
- V. Moderato in G major
- VI. Allegro appassionato in F minor
- VII. Moderato in F major
- VIII. Vivo in A minor
- IX. Allegro Moderato in A major
- X. Lento in B minor
- XI. Allegretto in B major
- XII. Allegro in G-Sharp minor
- XIII. Grave in D-Flat major

J. P. Rameau 1683-1764

Suite in D major from Pièces de clavecin avec une méthode pour la mécanique des doigts

기술적 손가락 훈련을 위한 클라브생 작품집 중 모음곡 D장조

라모는 18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로 클라브생과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동했다. 독일 바로크 음악에 경쾌하고 우아한 로코코 양식을 더해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독창적 양식으로 발전시킨 작곡가이다. 『기술적 손가락 훈련을 위한 클라브생 작품집』은 라모의 두 번째 작품집으로 E단조와 D장조 2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음곡 D장조는 총 열 개의 수록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오늘 연주되는 '상냥한 호소 - Les Tendres Plaintes'는 A-B-A-C-A의 론도 형태로 주제가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 세 부분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솔로뉴의 얼간이 - Les Niais de Sologne'는 두 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변주에서는 셋잇단음표를 중심으로, 두 번째 변주에서는 오른손의 동일한 주제 멜로디에 왼손이 16분음표로 바쁘게 진행하며 전개된다.

C. V. Alkan 1813-1888

"Le Festin d'Ésope", Op.39 No.12

"이솝의 향연", Op.39 No.12

알캉은 낭만시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대부분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는 2개의 연습곡집을 작곡했는데 하나는 『12개의 장조 연습곡, Op.35』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개의 단조 연습곡, Op.39』이다. '이솝의 향연'은 그 중 작품번호 39번의 12번째에 해당하는 연습곡으로 주제와 25개의 변주의 형태를 갖는다. '이솝의 향연'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솝우화의 아기자기함과 달리 E단조로 비장하게 시작한다. 스스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던 알캉의 작품답게 25개의 변주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리듬 외에도 옥타브 화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패시지, 도약, 32분음표의 빠른 패시지 등 연주자에게 고도의 테크닉과 동시에 집중력을 요한다.

F. Schubert 1797-1828

Fantasia in C major, 'Wanderer', D.760

방랑자 환상곡 C장조, D.760

수많은 예술가곡을 남긴 슈베르트는 자신의 가곡 '방랑자'의 선율을 피아노 작품에도 사용하여 『방랑자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그의 피아노 작품들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단단한 짜임새와 함께 보다 피아니스틱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작품은 걸로 드러나는 기교보다는 대부분 멜로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랑자 환상곡』에서는 피아니스트에게 고난도의 기교와 음악성을 요구한다. 슈베르트 자신마저 너무 어려워서 연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현대 많은 피아니스트들도 그의 작품 중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다.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악장의 마지막 부분은 끝세로줄이 아닌 겹세로줄로 종지 없이 다음 악장으로 연결되며, 1악장의 주제선율은 전체 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단악장처럼 느껴지게 한다. 2악장에서는 슈베르트 가곡 중 『방랑자(Der Wanderer)』의 선율을 주제로 변주된다. 스케르초 형식의 3악장을 지나 4악장에서 다시 원래의 C장조로 돌아오는데 슈베르트의 음악에서 보기 드문 푸가형식이 나타난다.

INTERVIEW

Q1.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넓은 시대를 아우르는데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특별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나요?

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제가 또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악이 없어서 그렇지 언제나 다양한 시대와 나라의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고 싶은 갈증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제 자신을 시험하는 라흐마니노프 13개의 프렐류드를 메인테마로 잡았는데,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가 전곡이 연주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제가 라흐마니노프의 솔로 피아노 작품을 처음 무대에 올려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들려드릴 생각에 걱정도 있지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A. Scriabin 1872-1915

Piano Sonata No.4 in F-Sharp major, Op.30

피아노 소나타 제4번 F#장조, Op.30

'신비주의 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스크리아빈은 독창적인 창작 스타일을 가진 러시아의 작곡가이다. 대부분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하였으며 그 중 10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20여년의 긴 기간에 걸쳐 완성된 만큼 그의 창작 스타일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창작 시기는 일반적으로 '초기-중기-후기' 세 부분으로 구분하며, 중기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4번』은 낭만적인 선율과 함께 신비화음 등 후기로 가기 위한 여러 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Andante, Prestissimo volando 두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악장의 주제가 2악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또한 두 개의 악장은 attacca로 연결되어 단악장 같은 느낌과 함께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S. Rachmaninoff 1873-1943

13 Preludes, Op.32

13개의 프렐류드 32

라흐마니노프는 스크리아빈과 동 시대를 살았지만, 음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였던 스크리아빈과는 달리 낭만시대의 전통적인 어법을 고수하였다.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는 『프렐류드, Op.3 No.2』, 『10개의 프렐류드, Op.23』, 『13개의 프렐류드, Op.32』의 총 24곡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작품이 24개의 조성을 갖는데, 이는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Op.28』를 연상케 한다. 13개의 프렐류드 중 5번과 12번은 발췌되어 무대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후기낭만의 색채가 돋보인다. 라흐마니노프는 작은 부분부터 클라이막스까지 모두 철저한 계산 하에 작곡을 하였는데, 이는 작품번호32 안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6번과 8번 그리고 13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곡은 모두 조용한 악상으로 끝을 맺으며 마지막 번호인 13번에 와서야 24개의 프렐류드의 대장정의 마침을 알리듯 ff(포르티시모)의 화성과 함께 화려하게 마무리 된다.

INTERVIEW

Q2.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COVID-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무너져서 지치고 힘든 때였고 힘들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해 1월에 네덜란드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매 순간이 아름답고 힐링이 되었는데요.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풍경들, 귀여운 동물들과 예쁜 하늘이 아직도 새록새록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다녀오고 제 스스로의 여유도 되찾고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면서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 기억들을 되새기며 더 다양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3. 예술의전당에서 첫 단독 리사이틀을 개최하는 소감과 함께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첫 예술의전당 단독 리사이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의 바로크를 대표하는 라모의 작품부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슈베르트, 최고의 비르투오소 작곡가인 알캉. 신비롭고 황홀한 스크리아빈과 창작열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라흐마니노프 작품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시국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뜻 깊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Upcoming Concert

2022 더브릿지컴퍼니 기획공연



2022

Season

The Bridge Company
Upcoming Concerts

©Taeuk Kang

안종도 피아노 리사이틀

Jongdo An Piano Recital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8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Philharmonic String Quintet Berlin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7:3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Hamelin_Sim-Cannety-Clarke

마크-앙드레 아믈랭 피아노 리사이틀

Marc-André Hamelin Piano Recital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베르뉴 국립 오케스트라**

Orchestre national d'Auvergne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Thomas Zehetmair)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5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C.R-Hamelin_0112_ElizabethDelage

샤를 리샤르-아믈랭 피아노 리사이틀

Charles Richard-Hamelin Piano Recital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7:3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박혜지 타악기 리사이틀**

Hyeji Bak Percussion Recital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8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